SAN 수요 수년간 정체

연간 수요 1만여톤 … 가격 경쟁력도 약화

최근까지 SAN의 용도는 다양화되어 왔으나 수요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정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AN은 ABS 컴파운딩용 외에 일회용 라이터, 투명치솔대, 선풍기팬, 화장품용기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산업용 배터리케이스 및 식품용기,냉장고 투명박스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장고 야채박스 및 투명판의 경우 기존에는 GPPS를 사용했으나 가격이 저렴한 것 이외에 강도 및 투명성이 우수,금성사를 제외한 삼성전자 및 대우가 일부 채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SAN은 대부분 Compounding 후의 과잉물량을 시판하고 있으며 SAN의 국내수요는 연간 1만여톤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회용라이터의 경우 92년 생산량은 1억2500만개로 국내 생산기업은 [불티나] 브랜드로 공급하는 삼지실업의 경우 월 50여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東海의 한국지사인 한국東海도 월 50톤, 남성성냥 10톤 등으로 총 120여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배터리케이스에는 내약품성 및 치수안정성이 우수해 사용이 늘고 있으며 화장품 용기에는 ABS와 블랜딩해 생산하고 있다.
선풍기팬에 사용되는 SAN은 럭키 80HF, 제일모직 HF5661, 한남화학 325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회용 라이터에는 럭키 95HC, 제일모직 CR5381, 한남화학 350이 사용되고 있다.
수입품은 DOW 및 MONSANTO제품이 소량 사용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SAN가격은 제조공정이 까다로움에도 불구,기존 가격이 GPPS와 톤당 20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었으나 현재는 덤핑으로 인해 가격이 바닥세에 있다.
따라서 가격상승시에는 일회용라이터를 제외하고는 GPPS로 대체가 가능해 수요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판 가능한 생산공정은 Bulk 공정으로 국내 시장은 럭키 및 제일모직이 양분하고 있으며 한남화학 제품도 일부 유통되고 있다.
한편 SAN은 AN 및 SM의 조성비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7대3 정도의 함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SAN은 생산시 발색기 반응으로 인한 황색도 현상으로 연속적인 가동이 어려워 약 1~2개월에 걸쳐 정기보수해야 하는 가동상의 단점이 있다.

<화학저널 1993/10/4 · 11>